




2018년 우수환경도서 선정 내역

온라인 도서 구입처 : <http://www.coupang.com/np/promotion/11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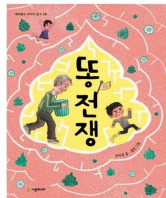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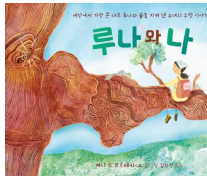
☐ 유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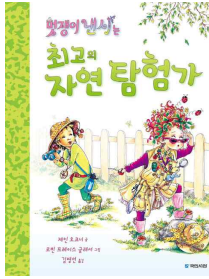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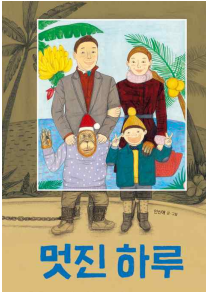
연번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주요내용	장르
1	 내 마음 가까이	마갈리 클라블레 글·그림 임희근 옮김 [노란상상]	할아버지는 아주 오래전, 젊었을 때 작은 씨앗들을 심었어요. 나무들은 커다란 키로 그늘을 만들고, 싱그러운 잎사귀들을 흔들며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늘 곁을 지켜 왔지요. 할아버지와 손녀 루이즈는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 숲의 거인들이 되었는지, 숲에는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놀라운 여행을 시작했어요.	동화
2	 내 친구 꼬마 별	앨리슨 제이 글·그림 김영선 옮김 [국민서관]	높다란 건물에 살고 있는 데이지네 창가로 노란 별이 날아들어 뽁뽁거렸어요. 자세히 보니, 작고 귀여운 꼬마 별이지 뭐예요. 꼬마 별은 날개가 축 처져 몹시 지쳐 보였어요. 그래서 달콤한 설탕물을 만들어 먹였어요. 덕분에 꼬마 별은 힘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화
3	 달려라, 빠방!	김수희 글 이경국 그림 [미래아이]	재사용과 재활용은 손쉬운 환경 보호 실천 방법 중 하나이다. 이 책은 낡고 오래됐지만 끊임없이 새롭게 변신하는 자동차 빠방이의 삶을 통해 재활용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일깨운다.	동화
4	 도시에서 저어새섬이 있어요!	남선정 글 문종인 그림 [비룡소]	9년간 날마다 저어새를 관찰하며 기록한 글을 모아 만든 환경 생태 그림책이다. 저어새와 습지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알려주고, 저어새섬에 날아드는 철새들과 저어새의 위태로운 모습을 통해 천연기념물 철새들의 삶을 새로이 조명했다. 저어새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인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기타 (논픽션 그림책)
5	 메이의 정원	안나워커 글·그림 김경연 옮김 [재능교육]	작가는 호주어린이도서협의회(CBCA) 2008년 《산타의 호주식 휴일 Santa's Aussie Holiday》로 에서 클라이트 상을, 2016년 《안녕, 울적아》로 최우수도서 상을 받았다. 이 작가는 가족 휴가를 보냈던 프랑스 파리의 창가에서 발견한 작은 숲과 정원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그림책으로 작은 아이의 꿈이 일군 초록빛 정원 이야기 이다.	동화

연번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주요내용	장르
6	 봄 숲 놀이터	이영득 글 한병호 그림 [보림출판사]	강아지 구슬이를 따라 숲으로 들어간 강이는 토끼들도 만나고 오소리도 만나고 멧돼지도 만난다. 맛있는 꽃밥을 배불리 먹고는 모두 다같이 그네를 타러 간다. 모두가 맛있게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한 행복한 하루였다.	기타 (그림책)
7	 불가사리는 어디로 갔을까?	바루 글·그림 [(주)이퍼블릭]	알록달록 다양한 물고기와 생물들이 한데 어울려 살던 아름답고 평화로운 바다... 그런데, 바다에 쓰레기가 하나둘 모이더니 점점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하고 더 이상 불가사리도, 해파리도, 흰둥가리도 보이지 않는다. 넓고 푸른 바다에서 행복하게 살던 동물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동화
8	 소풍 가기 좋은 날	김미현 글·그림 [노란상상]	“놓치지 마! 지금부터 미오가 아주 멋진 것들을 보여 줄 거야!” 무심코 지나쳐 왔던 소중한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 미오가 진흙 범벅이 된 아저씨의 얼굴을 훑아 주며, 그동안 아저씨가 보지 못했던 멋진 풍경과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동화
9	 우리가 사는 지구의 비밀	캐런 브라운 글 웨슬리 로빈스 그림 김현희 옮김 [(주)이퍼블릭]	우리가 사는 지구는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자연환경과 자연현상을 원리를 배우다 보면 지구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나아가 앞으로 우리가 왜 자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동화
10	 으랏차차 흙	박주연 글 이유정 그림 [길벗어린이]	흙은 공기나 물처럼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정작 흙이 왜 중요하고 어떤 원리를 갖는지 잘 알지 못한다. 이 책은 흙을 대상화하지 않고, 흙의 존재를 적극 보여 주면서 흙의 순환과 생명들과의 상호작용을 차근차근 풀어 간다.	동화
11	 illuminature 일루미네이션. 자연을 비춰 봐요	레이철 윌리엄스 글 카르노브스키 그림 [보림출판사]	3색의 마법 렌즈로 그림을 비춰 보면 그림 속에 살아 움직이는 자연을 볼 수 있다. 콩고 열대 우림, 심프슨 사막, 로몬드 호, 안데스 산맥, 웨들 해와 로스 해 등, 그 곳에서 놀라운 180종의 동물들을 발견할 수 있다.	기타 (그림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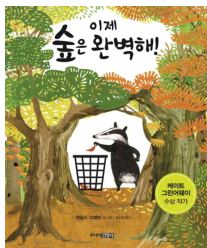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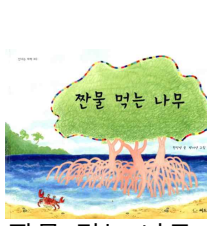
연번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주요내용	장르
12	 작은 씨앗	문종훈 글·그림 [한림출판사]	자두를 먹다 씨앗이 나오자 귀여운 삼 남매는 옥상으로 올라가 씨앗을 심는다. 하룻밤 자고, 신나게 놀고, 또 하룻밤 자고..., 문득 씨앗이 궁금해진 아이들은 옥상으로 올라가 본다. 어느새 커다래진 자두나무! 맛있게 자두 열매를 따 먹은 아이들은,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동화
13	 찌저적	이서우 글·그림 [도서출판 북극곰]	눈과 얼음의 나라 남극에 황제펭귄들이 무리 지어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찌저적' 하고 빙하가 갈라져서 꼬마 펭귄이 혼자가 된다 꼬마 펭귄은 작은 얼음 조각에 의지해 세계 곳곳을 여행하게 되면서 생기는 흥미진진한 아이디어를 더해 만든 유쾌한 작품이다.	동화
14	 홀라홀라 추추추	카슨 엘리스 글·그림 김지은 옮김 [웅진주니어]	생명 탄생의 경이로움, 다양한 존재가 어울리는 즐거움을 곤충의 눈과 언어를 빌려 자연 그대로의 이야기를 풀어 간다. 이를 보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화

□ 초등학교 1~3학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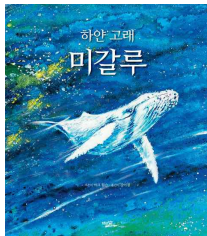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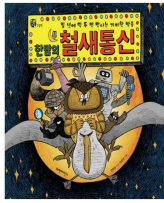
연번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주요내용	장르
1	 똥 전쟁	오미경 글 영민 그림 [시공주니어]	시골에서 잠시 올라온 할아버지가 똥을 모으면서부터 동해네의 '똥 전쟁'이 시작된다. 그런데 입이 썩 친구, 차봉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학교에 소문이 퍼져서 동해는 '똥바다'란 별명을 얻는다. 게다가 동해네로 '똥 배달'을 오는 이웃들까지 생기면서, 똥이라면 지긋지긋해진 동해는 똥을 안 누기로 결심한다.	동화
2	 루나와 나	제니수 코스타카쇼 글·그림 김희정 옮김 [청어람아이]	줄리아 버터플라이 힐이라는 미국의 한 평범한 여성이 이뤄 낸 위대한 도전과 가치를 담은 이야기이다. 그녀가 캘리포니아 삼나무 숲에 처음 발을 디뎠던 1996년에서, 목재회사로부터 벌목을 중단하고 숲을 보호하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을 받아 낸 1999년 12월까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엮은 책이다.	동화

연번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주요내용	장르
3	 마법 축구화	토브 피에루 글 요안나 헬그렌 그림 황윤진 옮김 [우리나비]	축구 경기가 시작되고 선수들이 힘차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움코는 날아오는 공을 피해 다니기만 했어요.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양말도 문제였죠. 움코는 몇 번이나 몸을 숙여 흘러내린 양말을 끌어올려야 했어요. 그러다 경기장 잔디 속에서 무언가 발견하는데.....	동화
4	 마사, 마지막 여행비둘기	아탁 글·그림 오석균 옮김 [도서출판 산하]	울창한 숲을 파괴하여 밭을 일구고 마을과 도시를 만든 사람들은 처음에 허기진 배를 채우려 여행비둘기를 사냥했다. 하지만 점점 사냥은 놀이가 되었고, 너무 많은 목숨들이 헐값으로 시장에 팔려 나갔는데.....	동화
5	 멋쟁이 낸시는 최고의 자연 탐험가	제인 오코너 글 로빈 프레이스 글래서 그림 김영선 옮김 [국민서관]	낸시와 친구 브리는 자연탐험대를 만들어 주변을 탐험한다. 아직 어린 동생들인 프레디랑 조조는 탐험대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탐험대에 들지 못할 뻔 했지만, 들판에서 떨어진 새끼 울새를 발견하여 구조할 수 있도록 도운 공로로 자연탐험대의 일원이 되는데 성공하게 된다.	동화
6	 멋진 하루	안신애 글·그림 [고래벳속]	한 가족이 쇼핑몰에 들어갑니다. 쇼핑몰 안에는 비싼 가방과 화려한 옷을 파는 명품점부터 장인이 만든 가구점, 소문난 맛집, 동물들의 신기한 재주를 즐길 수 있는 공연장과 수족관까지 흥미로운 곳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멋진 하루를 보내는 장면 뒤로 괴로운 표정의 동물들이 보입니다. 대체 동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동화
7	 물은 정말 힘이 세	김영호 글 국민지 그림 [시공주니어]	인간의 몸중 70% 차지하는 물! 물이 얼마나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그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아이들과 생각하게 한다. 지구를 지구답게, 생명을 생명답게 지켜 주는 신비한 물의 모든 것을 단계별로 알아 가는 지식 그림책이다.	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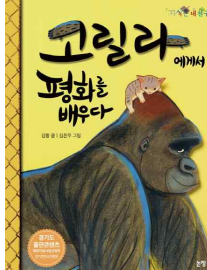

연번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주요내용	장르
8	 바다 아이 창대 1, 2, 3	김중현 글 이종철 그림 [㈜도서출판 보리]	만화의 주인공 창대는 바다 생물에 대해서는 마을 아이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 한양에서 처음 내려온 정약전을 만났을 때도, 섬 아이들과 바다 놀이를 하면서 마주치는 물고기들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설명해 준다. 주인공 창대가 떠나는 모험을 바다 생물의 생태도 함께 익힐 수 있다는 점이 《바다 아이 창대》의 큰 재미이자 장점이다.	만화
9	 비닐봉지 하나가 : 지구를 살린 감비아 여인들	미란다 폴 글 엘자 베스 주논 그림 엄혜숙 옮김 [길벗어린이]	비닐봉지는 싸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닐봉지가 찢어지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서아프리카 감비아의 아이사투는 끔찍한 쓰레기가 된 비닐봉지를 재활용할 방법을 찾아냈고, 친구들과 함께 비닐봉지로 지갑을 만들기 시작한다.	동화
10	 세상의 모든 나무를 사막에 심는다면	H.조셉 홉킨스 글 질 맥엘머리 그림 김희정 옮김 [청어람아이]	편견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환경과 가치, 더 나은 미래에 도전했던 19세기 실존 여성 식물학자이자 원예사 케이트 세션스의 일대기를 엮은 그림동화이다. 이 책은 세월이 흐를수록 빛나는 가치와 인생관, 그리고 어린이들의 롤모델이 되어 줄 인물의 올곧은 삶을 소개하고 있다.	동화
11	 수달아 수달아 꼭꼭 숨어라	신응섭 글·그림 [여우별]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긴 강 섬진강에는 천연기념물 330호 유라시안 수달이 살고 있다. 엄마 수달은 아가 수달에게 맛있고 커다란 물고기를 잡아주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다.	동화
12	 암탉은 파업 중	필라르 세라노 글 마르 페레로 그림 김지애 옮김 [㈜라임]	어느 날 갑자기 암탉들이 파업을 선언한다. 좁고 어두운 닭장에 바글바글하게 가둬 놓고, 질 좋은 달걀을 낳으라는 것이 안 된다면서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달걀을 낳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책은 '동물 복지'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동화

연번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주요내용	장르
13	 야생동물 구조 일기	최협 글·그림 [길벗어린이]	이 책은 새끼 삶을 비롯한 20종의 야생동물들과 동고동락하며 지낸 관찰 일기와 현장 스케치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논픽션 그림책으로 저마다의 사연으로 구조된 야생동물들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히 담고 있다.	동화
14	 이제 숲은 완벽해!	에밀리 그레빗 글·그림 김소연 옮김 [주니어김영사]	‘숲돌이’는 매일매일 숲을 완벽하게 치우느라 분주하다. 진공청소기로 ‘위이이잉’ 숲 바닥을 휘젓고 다니고, 빗갈이 다른 꽃이 보이면 싹둑 잘라 버리고, 온갖 새들을 불러 모아 거품 세제로 뽁뽁 씻긴다. 어느 날에는 숲 전체에 콘크리트를 부어 버렸다. ‘이제 숲은 완벽해!’라고 외치며 기뻐하던 숲돌이가 멈칫한다.	동화
15	 전기가 나오는 축구공-지구를 웃게 하는 착한 발명, 적정 기술	서지원 글 오승민 그림 [와이즈만 BOOKS]	빛을 쓸 수 없는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축구를 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공을 만들어 내고, 페트병을 이용해 빛을 밝히는 기술은 모두 복잡한 시설과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처럼 주변에 있는 천연재료와 에너지를 이용한 적정 기술에 대해 어린이 눈높이에서 알려주는 책이다.	기타 (그림책)
16	 잔물 먹는 나무	한정영 글 박지영 그림 [㈜씨드북]	마라케이 섬에 사는 파세카는 나무 타기를 제일 좋아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땅위로 점점 바닷물이 차오르며 나무들이 썩기 시작했다. 바닷물이 자꾸자꾸 차올라 파세카의 집도 벌써 두 번이나 옮겨야 했다. 그러던 중 엄마가 보낸 편지와 함께 보낸 맹그로브 묘목이 도착하는데.....	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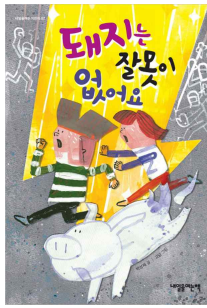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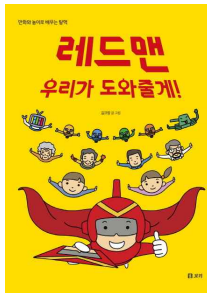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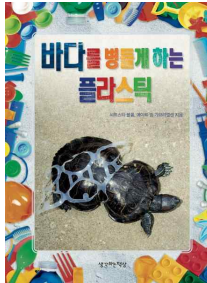

연번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주요내용	장르
17	 청딱따구리의 선물	이우만 글·그림 [㈜도서출판 보리]	청딱따구리도 물을 먹으려고 계곡에 있는 바위 틈에 갔지만, 여느 산새들과 다른 행동을 하게된다. 청딱따구리는 그저 자기가 목욕하기 위해 열심히 물웅덩이를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숲속에 작은 선물을 안겨 준 것이다.	동화
18	 큰발이 몰려온다!	황종금 글 문종훈 그림 [도서출판 한울림어린이]	갈대숲이 우거진 갯벌 마을에 큰발들이 찾아오면서 평화는 산산조각이 난다. 큰 발은 물막이둑을 만들어 갯벌을 마르게 하더니, 시도 때도 없이 몰려와 갯벌 식구들을 잡아 가조. 용감한 칠게 꿈눈과 세스랑게 털보는 큰발들이 없는 말랑말랑 갯벌을 찾아 모험을 시작한다.	동화
19	 꿀벌	보이치에흐 그라이코브스키 글 피오토르 소하 그림 [도서출판 풀빛]	공룡이 살던 시대의 것으로 밝혀진 호박 화석 안에서 발견한 꿀벌과 꽃가루, 꿀벌은 언제부터 지구에 살았을까? 최초의 꿀벌은 꽃의 단물이 아닌 곤충을 잡아먹었다는데? 이 책에서 그 답을 알려 준다.	일반 도서
20	 플라스틱 병의 모험-재활용이 란 무엇일까?	앨리스 인치스 글 피트화이트헤드 그림 [보물창고]	'플라스틱 병의 일기'라는 형식을 통해 원유가 어떤 공정을 거쳐 플라스틱 병으로 만들어지는지 시간 순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또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 센터에서 압축되고 플라스틱 재가공 공장에서 합성 섬유로 가공되는 과정을 보여 주며 재활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풀어 준다.	일반 도서

연번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주요내용	장르
21	 하얀 고래 미갈루	마크 월슨 글·그림 강이경 옮김 [도토리숲]	하얀 고래 미갈루는 세상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하얀 고래이다. 혹등고래를 비롯한 여러 고래들과 돌고래, 작은 고래들은 고래잡이(포경)와 온난화 그리고 환경 파괴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동화
22	 한밤의 철새 통신	전현정 글 이경석 그림 [파란자전거]	일 년에 두 번 대이동을 하는 철새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멸종, 공생과 공존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철새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환경 변화,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철새들의 생각을 가감 없이 보여 준다.	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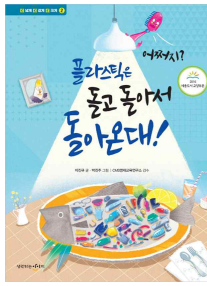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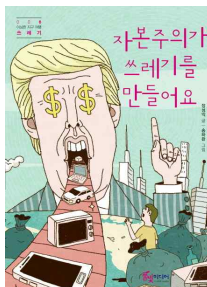
□ 초등학교 4~6학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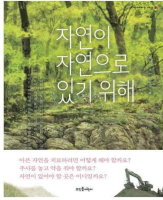


연번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주요내용	장르
1	 고릴라에게서 평화를 배우다	김항 글 김은주 그림 [도서출판 논장]	고릴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면서 고릴라의 습성, 생태 환경, 관련 생물학 지식을 깊이 있게 설명한다. 다윈의 진화론, 린네의 이명법 등 교과 관련 지식도 꼼꼼하게 다루었다. 주변의 실제적인 이야기까지 풀어내며 내용을 충실히 담았다.	일반 도서
2	 곡식의 지혜	모리구치 미쓰루 글·그림 [봄나무(한즈미 디어㈜)]	오랜 시간 사람들과 함께해 온 곡식에는 우리 조상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곡식들의 살아남기 위한 지혜가 함께 담겨 있다. 강아지풀 같은 잡초가 어떻게 우리 밥상의 주인이 되었는지 곡식의 역사를 배워 가는 재미가 있는 책이다.	도감



3	 <p>곤충은 왜? (1,2권)</p>	<p>임권일 글 [도서출판 지성사]</p>	<p>곤충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지킨다. 초속 10미터에 달하는 폭탄 방귀를 끼기도 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무서운 장수말벌을 흉내 내기도 한다. 심지어 아주 오래 전, 무서운 적을 피하기 위해 아예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곤충들도 있었다.</p>	일반 도서
4	 <p>과학자들은 왜 철새를 탐구했을까?</p>	<p>플뢰르 도제 글 상드린 토멘 그림 박언주 옮김 [도서출판한울림 어린이]</p>	<p>이 책은 먼 옛날 사람들이 품었던 철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엉뚱한 상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학자들이 관찰하고, 탐구하여 밝혀낸 철새에 대한 기록들을 풀어낸다. 철새에 대해 알려주는 한편으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p>	일반 도서
5	 <p>내일을 바꾸는 작지만 확실한 행동</p>	<p>시릴 디옹.피에르 라비 글 코스튬 트루아 피에스 그림 권지현 옮김 [한울림어린이]</p>	<p>이 책은 2016년 세자르 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터리 상 수상작 <내일>에서 못다 한 이야기이자, 한울림어린이에서 펴낸 생태환경동화 《내일—지속가능한 미래를 찾아 떠나는 루와 파블로의 세계 여행》의 실천편이다.</p>	일반 도서
6	 <p>늑대와 소녀</p>	<p>정성희 글 염예슬 그림 [출판놀이]</p>	<p>이 작품의 주인공은 타미르(오빠)와 헤를렝(여동생), 그리고 암스갈(늑대)이다. 문명사회로 나아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 진학을 앞둔 타미르가 성년식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이끌려 시골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 작품은 출판 진흥원에서 우수 작품으로 추천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다.</p>	동화

7	 <p>돼지는 잘못이 없어요</p>	<p>박상재 글 고담 그림 [내일을여는책]</p>	<p>황금 돼지해에 태어난 상우와 아기 돼지 상돈이가 펼치는 재미있고 가슴 찡한 이야기를 통해 구제역이란 무엇이고 왜 생기는지, 그리고 동물을 강제로 죽여 매장하는 살처분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이야기를 읽고 난 뒤, 아이들은 구제역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의견을 나눌 수 있다.</p>	동화
8	 <p>레드맨 우리가 도와줄게!</p>	<p>김규정 글·그림 [㈜도서출판보리]</p>	<p>열다섯 편의 만화와 열여섯 편의 탈핵놀이로 구성되어 있다. 만화는 레드맨이 핵발전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핵발전과 관련된 인물과 장소를 찾아다니며 이야기가 전개된다.</p>	만화
9	 <p>바다를 병들게 하는 플라스틱</p>	<p>시르스티 블룸, 에이르 빙 가브리엘센 글·그림 한소영 옮김 [생각하는책상]</p>	<p>북극해 스발바르 제도에서 사는 북방풀머갈매기는 평생을 같은 짝과 사는데 겨울에는 헤어졌다가 봄이 오면 다시 만나 새끼를 낳는다. 그러나 올봄에는 암컷이 돌아오지 못하였다. 우리 인간이 바다 동물들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느끼게 해 준다.</p>	일반도서
10	 <p>세계시민수업⑤ 환경정의 : 환경 문제는 누구에게나 공평할까?</p>	<p>장성익 글 이광익 그림 [도서출판 풀빛]</p>	<p>정의의 눈으로 본 환경 문제,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환경 문제는 누구에게나 공평할까?” 이 책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환경 문제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본다.</p>	일반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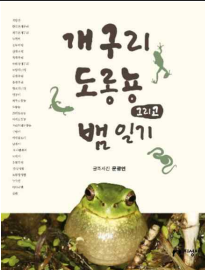

11	<p>세상을 바꾸는 착한 초콜릿 이야기</p>	<p>서선연 글 이미리 그림 [(주)도서출판 북멘토]</p>	<p>‘공정무역’ 이야기를 일곱 편의 동화로 담았습니다. 축구공을 만드는 파키스탄 아이들의 이야기부터 코트디부아르의 카카오·에콰도르의 바나나·니카라과의 커피·인도의 목화 농장, 네팔로 떠난 공정여행, 우리나라의 공정무역상점 이야기 등 모두가 잘살기 위한 건강한 지구, 공정한 분배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p>	동화
12	<p>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습관</p>	<p>하지원 글 주미 그림 [주니어북스]</p>	<p>지금 우리의 건강한 삶, 지속가능한 삶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건강한 숨, 안전한 삶(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따질수록 건강해져요(먹을거리를 안전하게!) △지구가 위험해요!(지구를 안전하게!) 등 총 7개의 카테고리 구성해 서술하고 있다.</p>	일반 도서
13	<p>야생 동물은 왜 사라졌을까?</p>	<p>이주희 글 강병호 그림 [철수와영희]</p>	<p>이 책은 야생 동물 이야기를 통해 생태계의 변화를 폭넓게 살필 수 있으며, 우리 주변의 생물에 대한 호기심과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권말 ‘작은 동물 사전’에서는, 이 책에 등장하는 22종의 동물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p>	일반 도서
14	<p>어서 와, 여기는 꾸룩새 연구소야</p>	<p>정다미 글 이장미 그림 [한겨레아이들]</p>	<p>새가 먹이를 소화하고 입으로 게워내는 것을 ‘펠릿’이라고 한다. 펠릿의 구성물을 조사해 보면 그 새가 무엇을 먹었는지 알 수 있고, 나아가 그 지역 생태 환경과 먹이사슬까지 밝혀낼 수 있다. 어린 과학자의 눈으로 보고 기록한 다양한 조류의 생태 정보를 따뜻한 그림과 함께 만나 보는 책이다.</p>	수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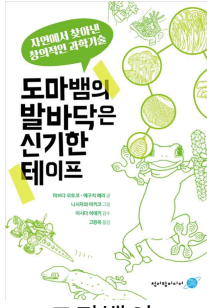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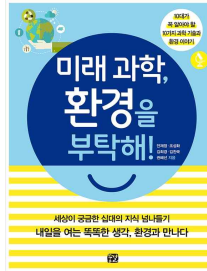


15	 <p>어찌지? 플라스틱은 돌고 돌아서 돌아온대!</p>	<p>이진규 글 박진주 그림 [생각하는아이지]</p>	<p>플라스틱으로 피해를 입은 앨버트로스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큰 해를 입힌다고 경고한다. 칫솔과 앨버트로스가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플라스틱을 다시 쓰고, 안 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환경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p>	일반 도서
16	 <p>오늘 미세먼지 매우 나쁨</p>	<p>양혜원 글 소복이 그림 [스콜라(위즈덤 하우스)]</p>	<p>한겨울 씨, 여름 여사, 봄이 이렇게 일명 계절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대기 환경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낸 책이다. 황사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궁금해하면서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해 봄이의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해 준다.</p>	동화
17	 <p>옥수수 왕 납시오! : 고소한 맛에 가려진 세상 읽기</p>	<p>이영주 글 신종우 그림 [생각하는아이지]</p>	<p>우리에게만 고작 간식거리인 옥수수. 하지만 옥수수가 얼마나 다양하게 쓰이는지 알고 나면 깜짝 놀랄 것이다. 옥수수는 시리얼, 이유식, 빵,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종이를 붙이는 풀에도 이용된다. 고소한 맛에 가려졌던 옥수수의 진짜 이야기다.</p>	일반 도서
18	 <p>자본주의가 쓰레기를 만들어요</p>	<p>장성익 글 송하완 그림 [풀빛미디어]</p>	<p>쓰레기 문제는 개인적인 생활 차원의 실천으로는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 우리 각자가 생활습관을 바꾸는 건 물론 중요하다. 쓰레기에 대한 틀에 박힌 생각을 넘어서야 한다. 소비사회와 성장사회로 상징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각별히 주목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p>	일반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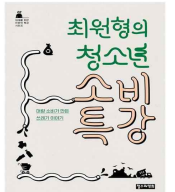

19	 <p>자연이 자연으로 있기 위해</p>	<p>채인선 글 김동성 그림 [뜨인돌어린이]</p>	<p>이 책은 '자연'을 의인화하여 자연이 못살게 구는 사람들로 인해 쓰러졌다는 설정에서 시작한다. 좀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한 거라며,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국토 여기저기서 자연을 훼손하고 파 괴하자 급기야 자연이 앓아눕고 만 것이다. 어떤 것이 자연을 위하는 길인지 사람들은 드디 어 고민하기 시작한다.</p>	동화
20	 <p>중학생이 되기 전 꼭 알아야 할 환경상식 10가지</p>	<p>고영란 외 글 박영준 그림 [도서출판 가교]</p>	<p>'환경상식 10가지'는 석면, 미세먼지, 층간소음 등 의 생활 속 환경문제와 탄소포인트제, 분리배출 표시제도 등 환경정보를 읽을거리, 생각거리, 활 동거리로 구성해 초등학교 수준에서 알기 쉽게 전달하는 등 학생들이 환경과 관련된 풍부한 상 식을 키울 수 있는 책이다.</p>	일반도 서
21	 <p>질문하는 환경 사전</p>	<p>질 알레 글 자크 아장 그림 홍세화 옮김 [도서출판 풀빛]</p>	<p>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과 관 련된 개념을 이해하고, 무엇 때문에 환경이 오염 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질문하는 환 경 사전》은 그림으로 환경 문제를 살핀다. 이 책은 이런 문제들을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게 풀어 간다.</p>	일반도 서
22	 <p>최후의 탐험대</p>	<p>은이결 글·그림 [도서출판 키다리]</p>	<p>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지난 지구는 온통 쓰 레기로 뒤덮이고, 바깥 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 로 공기가 오염된다. 급기야 더는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지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찾는 의문의 남자 이다. 소환일이 다가오면서 소환의 비밀, 알파맨 의 정체, 전설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진다.</p>	동화

23	 <p>포기하지 않아, 지구 - 내 맘대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p>	<p>이하나 글 [빨간소금]</p>	<p>2015년~2017년 '지구나눔연구소'와 '수원시 기후 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이 함께한 <지속가능발전 (ESD) 학생자율연구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모았다. 학생들과의 인터뷰, 학생들이 직접 만든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동화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가 재구성했다.</p>	일반 도서
24	 <p>환경파괴로 사라지는 곤충들</p>	<p>이광렬 글 [일진사]</p>	<p>지구 온난화 및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멸종되어가는 곤충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환경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재미있는 삽화를 함께 수록해 환경에 대한 자연스런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p>	일반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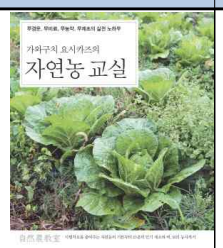
□ 중·고등학생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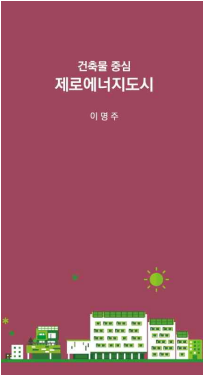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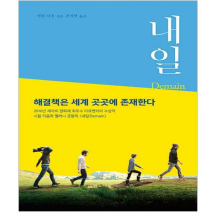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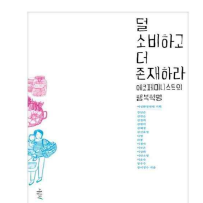

연번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주요내용	장르
1	 <p>개구리, 도롱뇽 그리고 뱀 일기</p>	<p>문광연 지음 [도서출판 지성사]</p>	<p>대전에서 고등학교 생물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가 양서류 18종, 파충류 20종을 관찰한 일기다. 이 책은 정확한 정보 전달에 힘썼다. 엇비슷한 개체들의 차이점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각 개체의 수컷과 암컷의 특징 등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p>	일반 도서
2	 <p>교실 밖, 펼떡이는 환경 이야기</p>	<p>타테야마 유지 외 2명 지음 이정아 옮김 [스마트주니어]</p>	<p>이 책은 오랫동안 환경 운동을 해 오며 국내외 환경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을 쌓아온 자연의벗연구소 오창길 소장과 권혜선 선생님, 그리고 일본 환경 전문가인 타테야마 유지가 청소년을 위해 본격적으로 집필한 환경 교양서이다. 작지만 주변에서 우리가 직접 환경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p>	일반 도서

연번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주요내용	장르
3	 <p>도마뱀의 발바닥은 신기한 테이프</p>	<p>마쓰다모토코, 에구치에리 글 나자와 미코 그림 고경옥 옮김 [청어람미디어]</p>	<p>인류와 지구가 공존할 수 있는 자연을 닮은 생체 모방기술 이야기를 다룬다. 나노 군과 나노 박사는 과학자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자연에서 어떤 지혜와 과학기술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 기술을 응용해 어떤 발명품들을 만들어냈는지, 자연을 모방한 과학기술 16가지를 소개한다.</p>	일반 도서
4	 <p>미래 과학, 환경을 부탁해!</p>	<p>안재정 외 4명 지음 [꿈결]</p>	<p>증강현실, 휴머노이드, 드론, 자율 주행차, 에너지 하우스 등 미래 과학 기술 10가지를 선정하고, 이 기술들을 환경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생각할 거리를 담고 있다.</p>	일반 도서
5	 <p>바람 좋은 날, 경복궁</p>	<p>박강리 글 [㈜북하우스 퍼블리셔스]</p>	<p>인간의 삶과 자연이 어우러진 곳, 경복궁. 돌, 마당, 지붕, 길, 담장에서 발견한 '자연스러움' 『바람 좋은 날, 경복궁』은 자연과 공존하는 경복궁의 여러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 사색하는 환경 에세이 책이다.</p>	수필
6	 <p>숲은 그렇게 대답했다</p>	<p>이상권 글 [특별한서재]</p>	<p>환경·생태소설의 대가 이상권 작가의 장편소설이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숲을 불태웠던 그 당시의 진실과 어른이 된 지금의 부모님의 생각, 현실, 어른들의 민낯을 모두 보면서 결국 숲을 지켜낸다.</p>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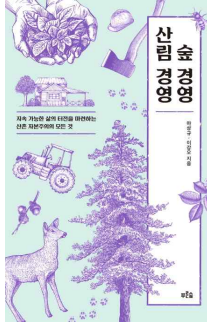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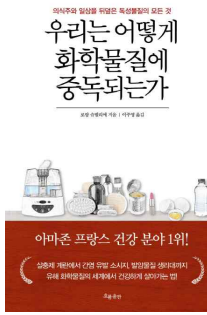
연번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주요내용	장르
7	 왜 기후변화가 문제일까?	공우석 지음 [반니]	기후변화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인류 생존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20세기 들어 2015년까지 기상이변에 관련된 자연재해의 피해 규모는 폭풍, 지진, 홍수 같은 3대 재난만 해도 3조 달러에 이른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지금이라도 온실기체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여섯 번째 지구 대멸종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경고한다.	일반 도서
8	 최원형의 청소년 소비 특강	최원형 글 [철수와영희]	지구 곳곳이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바닷속까지 쓰레기가 들어차고 있다. 이 책은 쓰레기 때문에 병들고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소비와 자원 낭비를 줄이는 자원 순환과 재생의 중요함을 알려주며,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소비와 쓰레기 재활용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반 도서
9	 플랑크톤도 궁금해하는 바다상식	김웅서 글 [도서출판 지성사]	이 책은 지구 온난화와 해양 자원 고갈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인류가 바다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책이다. 지진과 쓰나미, 온난화, 자원고갈 문제까지 인류의 미래가 달린 바다에 관한 상식을 담았다	일반 도서

□ 일반인용



연번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주요내용	장르
1	 가와구치요시카즈의 자연농 교실 - 무경운, 무비료, 무농약, 무제초의 실전 노하우	아라이 요시미, 가가미야마 에츠코 지음 최성현 옮김 [정신세계사]	전 세계 자연농법가들의 대부로 손꼽히는 가와구치 요시카즈의 본격 자연농 실천서로 단순히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는 유기농의 관점을 한참 넘어서는 획기적인 농사법이다. 땅을 갈지 않고,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 풀과 벌레를 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3대 원칙으로 삼는다.	일반 도서

연번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주요내용	장르
2	 건축물중심 제로에너지도시 이명주 건축물중심 제로에너지도시	이명주 글 [마실와이드]	에너지효율적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으로 단열이나 창호, 기밀과 같은 패시브 요소와 난방, 급탕과 같은 에너지설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의미하는 액티브요소를 설명하고 이런 요소들이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림과 도표 등을 통해 쉽게 제시한다.	일반 도서
3	 귀소본능	베른트 하인리히 지음 이경아 옮김 [도서출판 더숲]	'귀소본능'에 대하여 자연주의자로서의 철학, 생물학자로서의 통찰을 담은 따뜻한 자연과학책으로 다양한 숲속 생물들의 이주와 귀향, 집짓기에 관한 하인리히의 세밀하고 집요한 탐사의 기록을 담고 있다.	일반 도서
4	 내일, 새로운 세상이 온다	시릴 디옹 지음 권지현 옮김 [한울림]	저자는 우리의 지성을 건드릴 뿐 아니라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의미와 영감, 그리고 이야기들을 찾아 나선다. 바로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책과 다큐멘터리로 담은 것이다.	일반 도서
5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강남순 등 지음 박정은 옮김 [시금치]	여성은 물론 인간과 자연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생명위기의 시대에서 다시금 인간과 자연의 '삶'을 회복하자고 말하는 실천적 사상, '에코페미니즘'에 대해 현장 운동가와 교수, 연구자 등 15인의 자기 성찰과 모색을 담았다.	일반 도서
6	 독도강치 멸종사	주강현 지음 [서해문집]	시마네 현의 오키 제도 사람들의 강치잡이로 '일본강치'라는 학명이 붙은 이 희귀한 종은 끝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강치잡이를 통한 독도경영은 사실상 반문명적인 범죄행위였음을 환동해 강치 생태계를 훑어보면서 강치잡이를 역사적으로 실증하고 있다.	일반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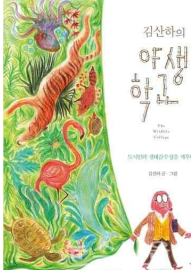

연번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주요내용	장르
7	 벌들의 역사	마야 룬데 지음 손화수 옮김 [현대문학]	<p>사라졌던 꿀벌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여운을 남기며 세 사람의 과거-현재-미래가 마지막에 하나로 이어지는 소설은 우리 후손들의 미래와 지구의 운명이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음을 강력하게 환기시킨다.</p>	일반 도서
8	 사향고양이의 눈물을 마시다	이형주 지음 [책공장더불어]	<p>나의 선택이 지구 저편 동물의 생과사를 가른다. 가장 비싸다는 루왁 커피를 위해 인도네시아 사향고양이가 고통받고, 오메가3 구입이 잔인한 하프물범 사냥을 지속시킨다. 세상은 나아졌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남의 생명을 뺏고서야 존재할 수 있는가? 많은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p>	소설
9	 생태 부엌 (냉장과 헤어진 어느 부부의 자급자족 라이프)	김미수 글·그림 [콤마]	<p>독일에 거주하는 생태주의 작가 김미수 씨와 생태토양학자인 다니엘 피셔 부부. 이들은 지속 가능한 생태적인 삶을 위해 부엌에서 냉장고를 없애기로 한다.</p> <p>지속 가능하고 생태적인 삶을 지향하는 부부의 철학과 소박하고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오늘날 나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해준다.</p>	일반 도서
10	 생태문명 생각하기 -내 삶을 바꾸는 환경철학	김성준 외 22명 지음 [크레파스북]	<p>환경정책은 단시간에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만큼 정책의 바탕이 될 철학의 공유가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본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시선을 통해 동·서양의 철학, 종교, 윤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조망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인 환경철학을 제시하고자 한다.</p>	일반 도서

연번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주요내용	장르
11	 생태와 대안의 로컬리티	공윤경 등 9명 지음 [소명출판]	생태 문제와 관련하여 로컬에 주목하고 당면한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공동체를 구체화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신적, 윤리적, 사회적,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는 담론을 살핀다.	수필
12	 숲 경영 산림 경영	마상규, 이강오 지음 [㈜도서출판 푸른숲]	국토의 65%가 숲인 우리 산림이 지금까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어왔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정부와 지자체, 산주 개인이 삼박자를 이루어 숲을 체계적, 효율적, 생태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경영을 통해 국민, 산주, 국가 모두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소개한다.	일반 도서
13	 오늘도 미세먼지 나쁨	김동환 글·그림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세기 초 일어났던 충격적인 세계 3대 대기 오염 사건으로 책을 시작한다. 대기 오염은 지금 시대만의 문제였을까? 이 책은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담고 있는 최초의 책이다.	일반 도서
14	 우리는 어떻게 화학물질에 중독되는가	로랑 슈발리에 지음 이주영 옮김 [흐름출판(주)]	저자는 이 책에서 풍부한 사료와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각종 화학물질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화학물질의 유독성에 속수무책으로 중독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경고하고 있다.	일반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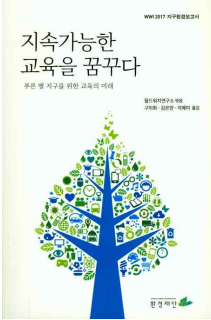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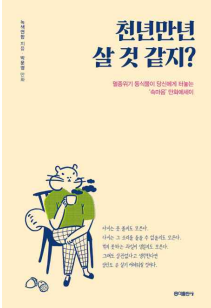

연번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주요내용	장르
15	 <p>우리의 미래, 환경이 답이다</p>	이병욱, 이동현, 강만옥 지음 [㈜와이에치미디어]	미세먼지 걱정 없는 나라, 4대강 녹조와 물 문제, 폐기물 재활용, 빛.소음.악취 공해, 환경사고, 탈석탄.탈원전 문제 등의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만나게 될 일자리들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시한다	일반 도서
16	 <p>인구감소·기후변화 시대의 공지의 재발견 -유 휴·방치부동산 살릴 길 찾다-</p>	이희연, 권영상, 이동근, 전의찬 글 [도서출판 문우사]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개발수요가 감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잉개발로 인한 문제들이 심각하다. 이 책은 인구감소·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유헴·방치부동산을 살릴 길을 찾기 위해, 환경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필
17	 <p>정원생활자의 열두 달</p>	오경아 지음 [공리]	정원생활을 하고 있거나 꿈꾸는 이들을 위한 열두 달 안내서이다. 정원 일을 처음 시작하고 있는 초보자들도 '아, 도전해볼 만하다!' 하는 느낌이 들도록 가능하면 쉽고, 가능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원 일의 노하우를 담았다.	일반 도서
18	 <p>지구를 살리는 쿨한 비즈니스</p>	김성우 지음 [퍼블리티]	녹색기후기금이 우리나라로 온 것은 우연일까? 그 배경은 어떤 걸까? 4차산업의 주요 기술들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들을 보여준다. 역사적인 에너지 전환의 시대 개인과 기업의 대응책을 제시한다.	일반 도서

연번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주요내용	장르
19	 지구의 미래: 기후변화를 읽다	조병욱 외 6명 글·그림 [지상사]	기후변화가 그저 날씨의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수면이 세계 평균의 3배가 넘게 상승한 제주도는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다. 환경보호를 위해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실천 사례를 소개한다.	일반 도서
20	 지구의 절반	에드워드 월슨 지음 이한음 옮김 [㈜사이언스북스]	저자는 지구의 절반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서식지를 보전한다면 현생 종의 약 85퍼센트가 살아남으리라고 전망한다. 인류는 '생명 세계의 청지기'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성과 실효성, 당위성을 두루 갖춘 환경 대책을 고심해 온 이들에게 심도 있는 논의의 출발점으로 유효하다.	일반 도서

□ 전연령층

연번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주요내용	장르
1	 김산하의 야생학교: 도시인의 생태감수성을 깨우다	김산하 지음 [갈라파고스]	열대우림에 사는 사람들은 뱀을, 북극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북극곰을 조심하지만 그들을 배제하려 하지 않는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 또한 축소된다. 자연과 문명의 경계에 선 영장류학자가 생태감수성의 의미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법을 이야기해준다.	일반 도서
2	 동물시편	최계선 글 정태련 그림 [도서출판아이북]	내륙지방에 사는 동물들로만 엮어진 이 시집에 실린 92편의 시들은 동물의 생태 습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동물에 비유해서 일상에서 쓰고 있는 말들과 속담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그들을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다. 또 동물들의 모습을 세밀화를 통해 정말 옆에 있어 만져볼 수 있는 느낌이 들도록 표현해놓았다.	일반 도서

연 번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주요내용	장르
3	 동지로부터 배우다 동지로부터 배우다	스즈키 마모루 글·그림 [더숲]	스즈키 마모루는 그림책 작가이면서 동시에 동지 전문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일본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을 돌아다니며 수집하고 탐사한 새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의 동지를 이 책에서 세밀하고 아름다운 일러스트에 담았다. 건축, 과학, 생태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영감을 전해줄 것이다.	시
4	 성남의 새(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성남의 새(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성남시 지음 [성남시]	2005년부터 시민들로 구성된 성남시 자연환경모니터들이 관내 산림지역 등에 대한 생태(11개 분야)를 해마다 조사하고 있으며, 조류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980년대부터 2017년 현재까지 발견된 조류 217종의 성남지역 서식지, 생태특성 등을 수록한 도감 및 E-book을 제작하였다..	만화
5	 쇠제비갈매기의 꿈 쇠제비갈매기의 꿈	신동만 지음 [스토리존(동아시아 임프린트)]	기후변화, 갯벌 매립, 공단지대 조성, 무분별한 채집 등 숱한 재난에 맞서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쇠제비갈매기들의 꿈을 그린다. 국내 유일의 수달 관찰소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제안도 한다. 그대로 두는 것이 최선의 보호라지만, 얽혀 있는 여러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시
6	 시티 그리너리 시티 그리너리	최성용 지음 [동아시아출판사]	저자인 최성용은 숲해설가이자 도시사회운동가로 오랫동안 활동한 인물이다. 책에서 저자는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우리가 그냥 지나친 다양한 생명현상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저자의 따뜻하면서도 재치 있는 필체는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도감
7	 쓰레기통 잠들다 쓰레기통 잠들다	박혜선 글 한수희 그림 [도서출판청년사]	이 책은 현재의 환경파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이들의 눈을 통해 이야기 하는 환경 동시집이다. 즉 아이들의 눈과 마음이 되어 자연을 바라본다는 것은 지구가 우리들의 엄마라는 인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은 지구 엄마의 아이들이라는 인식은 생명의 소중함과 평등사상을 갖게 하는 원천인 것이다.	일반도서

연 번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주요내용	장르
8	 작고 느린 만화가게 (생태환경 만화 모음집)	황경택 외 16인 지음 [(사)작은것이 아름답다]	자연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감성 만화 36편을 엮었다. 열일곱 환경만화가들이 숲, 꿀벌, 개구리, 철새, 야생동물, 흙, 물, 기후 같은 자연 이야기와 재생종이, 전기, 플라스틱, 빗공해, 화학세제, 먹을거리 같은 환경주제, 침묵, 속도, 소비, 로그아웃 같은 생	만화
9	 지속가능한 교육을 꿈꾸다. 푸른 별 지구를 위한 교육의 미래 -2017 지구환경보고서	월드워치연구소 엮음 구미화,외 2명 옮김 [재단법인 환경재단]	미국 환경 분야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월드워치연구소가 매년 환경 관련 최신 이슈와 정보들을 모아 발간하는 《지구환경보고서》 최신판 《지속가능한 교육을 꿈꾸다: 푸른 별 지구를 위한 교육의 미래》는 '환경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기타
10	 천년만년 살 것 같지?	녹색연합 지음 박문영 그림 [홍익출판사]	야생 동식물의 가감 없는 속마음을 귀여운 만화로 본다. 멸종위기종 구조 현장에서 활동한 환경활동가들의 생생한 후일담과 일상에서의 구체적인 실천법도 실려 있다. 이 책은 멸종위기 동식물의 '우리과 다를 바 없는' 하루와 소망을 밝고 위트 있게 그렸다.	일반 도서
11	 해운대 바다상점: 마을기업 에코에코 협동조합, 바다에 빠지다	화덕현 지음 [해피북미디어]	해운대 바다쓰레기, 다시 태어나다. 바다쓰레기, 폐 파라솔의 새로운 탄생에 얹힌 이야기들.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해운대. 그곳에 자리 잡은 바다상점은 바다쓰레기를 재활용해 예술작품화한 상품(업사이클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책은 '생태의 가치가 메아리치듯 방방곳곳에 울려 퍼지길 희망한다.'	일반 도서